

newsletter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제 18호 발행일 2021년 4월 1일 | 발행 SSK 남북한마음통합연구센터 <http://http://insdv.nk.ac.kr/SSK>

→ 전임 연구원 칼럼

북한학의 인문학적 가능성과 새로운 맥락의 구성

주혁민은 심장이 가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 심장이 가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좀처럼 피로를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주혁민도 자정에 퇴근해서 새벽 3시에 출근한다. 물론 그는 소설 속의 인물이다. 심장이 가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1990년대 북한의 현실을 짐작케 해주는 묘사가 많다. 예를 들어, 당 간부를 포함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밤늦게 퇴근해서 새벽에 출근한다는 묘사나 그들 중 일부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주혁민은 백보흠의 소설 『라남의 열풍(2004)』에 라남관광기계연합사업소의 당비서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여러 허구적 설정에도 불구하고, 『라남의 열풍』에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한 정신력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인물은 북한뿐 아니라 20세기 사회주의국가들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던 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설의 대표작 중 하나인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의 자전적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1936)』에도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와 당을 위해 일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소련 건설기의 젊은 병사 파벨이 바로 그다. 파벨은 병을 얻고 장애를 얻는 와중에도 계속 전장(戰場)과 일터로 달려간다. 내용만 보면, 북한식으로 말해 ‘강철은 어떻게 마사지는가(부서지는가)?’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작가인 니콜라이 오스트롭스키는 ‘죽도록’ 일하고 싸우다가 서른두 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주혁민과 파벨은 새로운 인간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정신력이 놀랍도록 강하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진정한 새로운 인간이었을까?

북한에서는 문학을 인간학으로 규정한다. 김정일이 『영화예술론(1973)』에서 내린 문학의 정의이다. 이런 생각은 러시아의 막심 고리키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학이라는 용어 자체는 철학적 인간학(philosophical anthropology)의 일본어 번역어 닌겐가쿠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평양 외국문출판사에서 나온 『영화예술론』의 영역본(1989)은 인간학을 휴머닉스(humanics)라는 아주 생경한 어휘로 번역한다. 북한의 영역서는 이런 경우가 많다. 번역을 회한하게 해서 해당 개념의 계보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인간학을 휴머닉스라고 번역하면, 이것은 마치 새로운 인간형을 만드는 신비한 ‘레시피’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인간학은 소련 초기부터 사회주의 문학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실패로 귀결된 기획이기도 하다.





우리와는 다른 인간들이다. 우리처럼 과로하면 죽고, 우리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간다. 하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마저 성별, 계급 등으로 다 나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은 늘 인문학적 성찰이나 방법론을 요구한다. 저들은 어떤 인간인가? 또한 저들을 공부하는 나는 어떤 인간인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현재 나의 자리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에 있다. 마음이란 애초에 인간의 특질일 수 있기에 인문학 전공자로서 남북한마음통합연구단이라는 사회과학연구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많은 학문적 동지를 얻었다. 안보 이슈가 압도하는 북한학이라는 지역학의 특성상, 인간이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맥락에서 벗어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인문학 전공자로서, 그리고 사회과학전공자로서 북한 연구의 새로운 '맥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2021년 2월 8일자 <교수신문>에 게재됐던 글이다.

문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생산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간이 서구 세계의 인간과 완전히 같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애초에 서구 르네상스의 산물인 표준적인 인간(혹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은 신화에 불과하다. 인간은 제각각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탈식민주의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사조들은 이러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은 다 다르다.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허구와 실재의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으면서도 또한



김성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교수

→ 연구 성과

『갈라진 마음들: 분단의 사회심리학』

김성경 / 파주: 창비 / 2020



〈출판사 서평 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그 방역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다시금 전국민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협에 빠뜨린 어느 개신교 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은 자신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북한의 바이러스 테러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처럼 ‘복귀’에 맞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태극기를 휘두르는 어르신부터, 북한을 한국 경제의 ‘먹거리’로 해석하는 중장년층, 북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의 성원 모두는 분단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70년간의 분단은 단순히 정치적·경제적 분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식과 감정의 분단을 만들어냈으며, ‘종북’ ‘빨갱이’ 등의 기표가 치장하듯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근원에 분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껏 북한/분단 관련 담론이 주로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다뤄진 것에 비해 『갈라진 마음들』의 저자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분단 문제를 사람들의 경험, 인식, 감정 등의 층위에서 분석하면서, ‘분단적 마음’이 현 상태를 재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다. 분단체제가 한반도 주민에게 남긴 영향을 일상과 정동의 영역에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이 책을 통해 그간 분단 문제에 무감각해왔던 독자들은 새삼 실감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분단체제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외교적·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던 분단 문제에 심리/문화/여성의 관점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책이다.

〈저자의 말〉

처음으로 먼발치에서나마 북조선 인민들을 본 것은 2001년 여름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조·중 접경지역에서 강 너머 까맣게 그을린 삐쩍 마른 아이들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너무나 낙후된 환경에 이미 할 말을 잃은 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말랐는지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 “저쪽은 못 먹어서 저래요.” 함께 간 중국 동포 가이드는 일상인 듯이 말했다. 지난밤 온갖 중국음식으로 배불리 먹었던 나와 일행은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다. 이 상태가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무엇보다 막상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별다른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연길을 떠나면서 뭐든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때 본 북조선 인민들의 얼굴이 희미해졌다. 잠깐의 충격이 사그라지는 속도는 잘나왔다.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다시 연길에 간 것이 2011년이다. 강 건너는 1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똑같아 보였다. 간간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또한 변함없었다. 곳곳이 민둥산이었으며, 살림집은 녹슬고 낡았다. 여전히 그들은 못 먹고 있었다.



북조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잔흔으로 남겨진 그들의 얼굴 때문이었던 것 같다. 북조선과 분단에 관련된 기존 연구가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정작 궁극한 사람들의 삶이나 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것도 동인이었다. 독재체제에 신음하는 사람들로 단순화하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치열하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와도 비슷한 보편적 존재로 설명하기에는 이들의 사회문화적·역사적 맥락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무지는 편견을 만든다. 편견은 오해를 낳는다. 그렇게 남북의 사람들은 멀어져갔으며, 분단된 시간 동안 북녘에 사는 이들은 생존의 고통을 그들끼리 오롯이 견뎌내고 있다.

북조선 인민들에 주목하면 할수록 나머지 반쪽으로 존재하는 이곳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불쑥불쑥 등장하는 분단이라는 폭력에 허우적거린다. 태극기를 들고 나라 걱정을 하는 어르신부터, 북조선을 한국 경제의 ‘먹거리’로 해석하는 회사원들, 젊은 시절 기억을 반추하며 통일 문제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 중장년층, 북조선에 관심 없다는 청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단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과잉된 혐오와 적대감으로, 아니면 무관심과 무시로 각자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나름의 대응방식을 체화하고 있다. 분단은 그렇게 남북 모두의 삶을 비틀어버렸다.

→ 연구 단 동 정

콜로키움 2020. 9. 28.

9월 28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본 연구센터의 공동연구원인 채석진 박사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채석진 박사는 “잔혹한 적에서 친밀한 가족으로: 탈냉전 시대의 미디어 이벤트로서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미디어 이벤트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관계를 새롭게 구성한 판문점 정상회담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학술회의 2020. 10. 16.

10월 1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정산홀에서 “인터코리아’에서의 감정의 정치”(Politics of Emotion in/for Inter-Korean Relations)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국제학술회의에는 마커스 홈즈, 벤자민 영, 소진형, 김도민, 조은정, 박세진, 이경목, 김성희 등 사회학 및 마음 연구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남북의 분단을 상호관계의 맥락에서 감정의 역할을 재사유하기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콜로키움 2020. 11. 5.

11월 5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국제한학센터 조은성 박사를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조은성 박사는 “주체의 실’ 비탈론과 북한의 사상, 기술,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비탈론이라는 물질을 중심으로 북한의 민족주의적 사회구조의 구성을 기술, 사상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콜로키움 2020. 11. 18.

11월 18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옥창준 선생을 초청하여 콜로키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옥창준 선생은 “뜨거운 제3세계와 차가운 한반도: <냉전의 지구사>를 통해 본 한반도”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아직 역사화 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냉전과 한반도의 관계, 한반도 냉전사의 연구 방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연구 단 동 정

정책연합학술대회 2020. 11. 26. ~ 27.

11월 26~27일 국회의원회관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하여 “분단체제 담론의 해체와 '한반도 시민'의 등장: '먼저 온 통일'에서 '시민'으로”를 주제로 정책연합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26일 세션5에서 본 연구센터의 부센터장인 김성경 교수와 최선경 전임연구원이 발표를, 27일 세션7에서 이우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외에도 사회학, 여성학, 철학, 역사학 등 여러 전문가가 모여 탈북민의 상황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오랜 분단체제의 극복에 유념하며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학술회의 2020. 12. 4.

12월 4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ZOOM)을 통하여 “‘인터코리아’에서의 감정의 정치”(Politics of Emotion in/for Inter-Korean Relations)를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유혜림, 장윤미, 김태경, 김성희 등 국제정치 및 마음 연구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남북한을 비롯하여 탄자니아, 중국·홍콩·대만 등에서의 평화, 통합 등의 모습을 구체적인 사례발표를 토대로 역사적 재구성 및 전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일 염원 뮤지컬 2020. 12. 11. ~ 12.

12월 11~12일 종로구 스카이씨어터 및 온라인(Youtube)을 통하여 “그날 우리는”을 제목으로 뮤지컬 공연을 주최하였습니다. 뮤지컬 공연은 갑작스러운 통일 이후 남한 주민, 북한 주민, 탈북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그렸으며, 극을 통해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과 준비된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세미나 2020. 12. 16.

12월 16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ZOOM)을 통하여 “생태 평화와 북한 SDG”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동세미나에는 구갑우 교수와 김태경 전임연구원이 각각 사회와 토론을 맡았으며, 황수환, 이경수, 윤석준 등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평화와 북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평화와 남북경협의 재정립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연구 단 동 정

국내학술회의 2020. 12. 21.

12월 21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ZOOM)을 통하여 “한반도 마음통합 정책의 구상”을 주제로 정책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이미경, 여현철, 이성숙, 김동진, 문인철, 김현아, 이종숙, 주예지, 김명신 등 통일 및 평화교육 그리고 교육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학적 논의와 실제 지역에서의 정책 적용 사례 및 교육현장에서의 실천 사례를 검토를 토대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동계 공부 모임 2020. 12. 22. / 2021. 1. 5. / 1. 22.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ZOOM)을 통하여 페미니즘을 주제로 동계 공부 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회에 걸친 모임에서는 정희진 박사, 서울대학교 이현정 교수, 연세대학교 이현옥 교수를 초청하여 현장성에 기반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제를 토대로 질의응답 및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마음통합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12월 22일 정희진 박사,

1월 5일 서울대학교 이현정,

1월 22일 연세대학교 이현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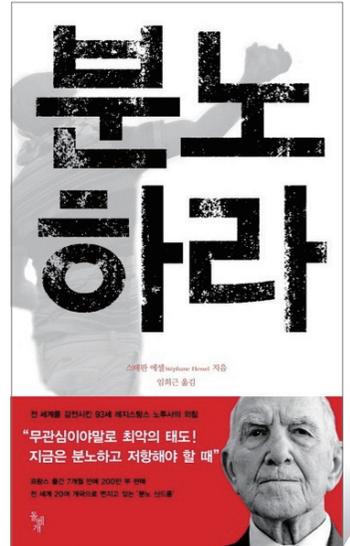


이슈배틀 2021. 2. 26.

2021년 2월 26일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 네트워크 제3차 합동 심포지엄 이슈배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이슈배틀에서는 본 연구센터의 이우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주화 공동연구원과 엄현숙 전임연구원이 대담자로 나서 “2030세대의 통일인식: 착각인가? 무관심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들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의 통일인식 특성 분석 및 향후 통일인식 논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칼럼 연재 : 책의 마음, 마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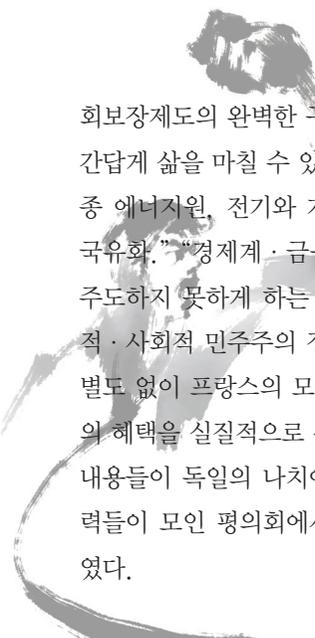


희망은 어찌 이리 격렬한가!

위계가, 계급이, 구조화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항조차 특권일 수 있는 그런 사회. 사회의 사다리 아래쪽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 위계는 아픔과 절망으로 다가오리라.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막다른 계단. 그 계단 위를 보는 것조차 금지된 사회. 우리 모두는 그 청년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청년들을 만나려는 여러 노력들이 책으로 나오고 있다. 청년을 보듬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라 말하는, 『아프니까 청년이다』, 『박경철의 자기혁명』 등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책들이 가지는 미덕이 있다. 희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베스트셀러의 틈 속에 있는 작은 번역본 하나. 『분노하라』다. 저자 스테판 에셀은 이차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였고 이후 외교관을 지낸, 93세의 노인. 책 제목 자체가 사자후(獅子吼)다. 어찌 이런 제목의 책이 그리고 프랑스 남부의 작은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이 200만부나 팔렸을까. 얇은 책이기에 싼 책값도 한몫 했으리라.

책은, 1944년 프랑스의 전국 레지스탕스 평의회가 제출한 개혁안에서 출발한다. “모든 시민에게, 그들이 노동을 통해 스스로 살길을 확보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생존방도들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



회보장제도의 완벽한 구축, 늙고 병든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해주는 퇴직연금제도.” “각종 에너지원, 전기와 가스, 탄전(炭田), 거대 은행의 국유화.” “경제계·금융계 대재벌들이 경제 전체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정립.” “독립된 언론.” “어떤 차별도 없이 프랑스의 모든 어린이가 가장 발전된 교육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내용들이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는 프랑스의 모든 세력들이 모인 평의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의 주요 골자였다.

마치 오늘을 위한 개혁안을 보는 듯하다. 늙은 레지스탕스는 이 개혁안을 실현하는데 더 이상 국가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쟁 직후 파산 직전이었던 프랑스 경제가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는데도 재원이 없다고 강변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영역에까지 금권이 장악을 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논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레지스탕스의 동기가 분노였듯이, 분노하라, 말한다. 분노할 때, “역사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학교 선배 사르트르로부터 배운 것은, 벤야민이 보았던 “재앙에서 재앙으로 이어지는 정할 길 없는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진보”하는, 절대자유주의, 즉 “어떤 권력에도, 어떤 신에게도 굴복할 수 없는 인간의 책임”이었다. 절대자유주의는 그에게 세계인권선언의 작성과정에서 주권을 고려한 ‘국제적’이란 표현이 아니라 ‘보편적’을 선택하게끔 했다. 절대자유주의는, 90세가 넘어 찾아간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범죄에 분노하게끔 한다(김재명, 『오늘의 세계분쟁』 참조).

그러나 그의 분노는 희망을 가지는 분노다. 그는 말한다. “어쨌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청춘들에게 제안한다. “오로지 대량 소비, 약자에 대한 멸시, 문화에 대한 경시, 일반화된 망각증, 만인의 만인에 대한 지나친 경쟁만을 앞날의 지평으로 제시하는 대중 언론매체에 맞서는 진정한 평화적 봉기를.” “창조, 그것은 저항이며, 저항, 그것은 창조다.” 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청춘들에게, “분노할 일에 분노하기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가. 반성의 기준점을 잃어버린 탓일까. 그러나 저항이 곧 창조이고, 창조가 저항이라는 에셀의 말은 지금 여기에서도 크게 울린다. 절대자유주의를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에, 시민단체에, 조합에 참여하라는, 그리고 “한 단계 높은 정치적 창의성”을 가진 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의 호소도 그렇다. 『분노하라』는 현재를 감전시킨 93세 레지스탕스가 청춘들에게 말하는 우리시대의 정치학이자 윤리학이다. 그가 인용하고 있는 아폴리네르의 시구처럼, “희망은 어찌 이리 격렬한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